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1년, 지원결과 보고



Save the Children

© Jordi Maas/Save the Children

위 사진 속 무니라(Munira)와 9개월 된 딸 히바(Hiba)는 지진으로 살던 집을 잃고, 현재 튀르키예 하타이(Hatay) 지역의 텐트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마을에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물과 위생 키트를 제공했으며, 엄마와 아기를 위한 영양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6일 화요일은 규모 7.8의 지진과 다수의 여진이 남부 튀르키예와 북부 시리아를 강타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진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에는 수많은 가정이 임시 거주지에서 살고 있으며, 시리아에는 1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쟁이 최근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세이브더칠드런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신속하게 긴급구호를 시작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현지 직원, 현지 파트너 기관은 지진으로 인한 잔해를 치우고,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긴급 식량, 물, 임시 거주지를 제공했습니다. 즉각적인 초기 긴급대응뿐만 아니라, 지진 이후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아동과 가족의 곁에서 다양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 아동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복구
- 가족들에게 현금 지원과 직업 훈련 제공
- 가족들이 추운 겨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미술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지원
- 장애 아동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자님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50만 명 이상의 아동을 포함하여
98만 명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아동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지난 1년간의 지원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본 보고서는 아동과 가족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현황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남서부 지역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튀르키예는 물론 국경에 인접한 시리아 북서부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56,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아동 약 620만 명을 포함하여 1,8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동들은 사랑하는 사람, 집, 학교, 지역 사회를 잃었습니다.

307,000개 이상의 건물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수천 가구는 아직까지도 조립식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 거주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더 많은 난방기와 단열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미 12년 이상 분쟁을 겪어온 시리아는 최근 북부 시리아에서 2019년 휴전 이후 최대 규모로 분쟁이 격화되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2024년 1월부터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지원이 중단되는 등 국제 원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이브더칠드런 지원 결과

후원자님 덕분에 지난 1년간 지진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아동 512,441명을 포함하여 982,858명을 지원했습니다.

 총 982,858명 지원 (아동 512,441명 포함)



© Ayşe Nur Gençalp / Save the Children

5개월 된 쌍둥이 아라스(Aras), 헤디예(Hediye)와 부모 페리데(Feride), 오스만(Osman). 아라스와 헤디예 가족은 튀르키예 하타이(Hatay) 지역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영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원 결과

튀르키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동 163,852명을 포함하여 316,958명을 지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3년부터 튀르키예 아동과 주민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보온을 위한 옷, 물, 식량을 제공하는 등 처음으로 대응을 시작한 단체 중 하나로, 1년 동안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4개 지역인 하타이(Hatay), 가지안테프(Gaziantep), 카라만마라쉬(Kahramanmaraş), 아디아만(Adıyaman)을 중심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활동하는 7개 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식량, 물, 임시 거주지와 같은 필수적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영양, 생계, 정신건강, 교육, 장기적인 경제 회복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주요 활동



임시 정착촌 조성

이재민 500가구를 위한 임시 정착촌 조성
160가구의 거주용 컨테이너 제공
정착촌 내 교육, 아동보호, 심리사회적 지원,
아동 사례 관리, 청소년 생계 지원
[▶ '한국-튀르키예 우정 마을' 보러 가기](#)



가족 생계 지원

현금 지원, 일자리 지원 및 훈련을 통한
지역사회 소득 창출 및 자립 지원



신생아 영양 상담 제공

재난 속 신생아 영양실조 방지를 위한
모유 수유 장려 및 상담 진행



학교 재건 및 교육 지원

16개 이상 학교 재건
임시 학습 공간, 도서관, 공부방 설치
교육 용품 지원, 교사 양성, 셔틀버스 운행



혹한기 보온 용품 지원

따뜻한 옷, 담요, 난방기 및 연료 지원



아동 친화 공간 운영

아동의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아동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아동 및 장애인 지원

아동,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샤워시설 설치



©Ayşe Nur Gençalp / Save the Children

희망의 '소리'를 선물받은 아이들

사진 속 튀르키예 아동 11살 시한(Cihan)과 16살 히랄(Hiral)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매로, 부모님과 또다른 두명의 형제자매와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일자리를 잃은 시한과 히랄의 부모님은 남매에게 보청기를 사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남매는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도 없어 발달이 지연됐습니다. 지진으로 살던 집이 무너지자 세이브더칠드런 활동 지역인 카라만마라쉬(Kahramanmaraş)로 오게 됐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보청기를 지원하고, 시한, 히랄 남매가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 센터에서 읽기와 쓰기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약 3개월 후 다시 말을 하게 되었고,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고 놀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책, 장난감 등의 물품과 지진 트라우마 대처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시리아 지원 결과

시리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동 348,589명을 포함하여 665,900명을 지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리아에서 2012년부터 활동하면서, 계속되는 분쟁과 경제 위기로 실향민이 된 아동과 가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년간의 현지 경험을 토대로 지진 발생 직후 48시간 이내에 대응을 시작했고, 혹독한 겨울 속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해 매트리스, 따뜻한 옷, 난방을 위한 연료,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18개 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임시 거주지, 생활 필수품, 물, 위생, 영양, 심리사회적 지원 등을 제공하며 신속하게 대응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과 경제 상황 악화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주요 활동



가족 생계 지원

생활 필수품 구입을 위해 필요한 현금 지원



학교 재건 및 지원

학교 재건 및 위생 서비스 제공
재난 대비 훈련 및 대피 계획 수립
구급상자, 소화기 등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



교사 지원

아동들이 정규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하고
지진에 대한 경험과 두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교사들의 대면 수업 지원



아동 친화 공간 운영

아동의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아동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지원

소아과, 내과, 영양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1차 보건의료 기관 지원



장애 아동 지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에게
휠체어, 목발, 안경 등 맞춤형 보조 장비 제공



© Bonyan/ Save the Children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

사진 속 아동 12살 마라(Marah)는 시리아 이드리브(Idlib) 지역 캠프에서 여섯 명의 형제자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라는 원래 공부를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분쟁과 지진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붕괴된 벽이 가족을 덮칠 뻔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밖으로 나가야 했고, 텐트에서 지내게 됐어요. 학교를 떠나야 해서 화가 났고 거의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은 마라가 살고 있는 캠프에 임시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중단된 교육을 다시 받고, 아동보호나 심리사회적 지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와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지원 계획

세이브더칠드런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응을 위해 총 8,730만 달러(한화 약 1,167억 1,137만 원*)를 확보했으며, 이 중 2023년에 4,450만 달러(594억 9,205만 원)를 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아동 512,441명을 포함하여 982,858명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많은 인도적지원이 필요합니다. 거의 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튀르키예의 임시 거주지에서 살고 있고, 시리아의 수천 가구는 분쟁으로 또다시 이주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 튀르키예에 아동보호, 정신건강, 교육, 생계, 임시 거주지, 식수 등을 우선 지원하고, 269,000명 이상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리아에는 아동보호, 정신건강, 교육, 생계, 영양, 보건, 식수 등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병원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하여 889,85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한순간에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져버린 아동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자님께서 맡겨주신 책무를 다해,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율 표기는 2024년 1월 30일 기준(USD 1\$= 1,336.9원).

지진 발생 1년,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아동들의 보호, 생계, 교육 지원과 학교,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 복구는 계속돼야 하지만 관심과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구호에 함께해 주세요!

[긴급구호 참여하기 \(일시후원\)](#)

튀르키예 안타키야(Antakya)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후, 웃는 얼굴로 인터뷰 중인 8살 괴닐(Gönül).